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과 교사의 반응성과의 관계

김숙령^{1*}

¹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nd teachers respectively and teachers' responsiveness

Sook-Ryong Kim^{1*}

¹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aichai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어머니 및 교사에 대한 애착과 교사의 반응성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D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유아 64명과 어머니, 그리고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이다. 연구도구로 애착 Q-set검사와 교사의 반응성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위해 Cronbach's α 와 연구문제를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교사의 일관성, 온정성, 민감성은 영유아의 교사에 대한 안정된 애착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둘째, 교사의 온정적인 태도와 민감한 반응은 영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안정된 애착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특성이 영유아의 교사에 대한 애착뿐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애착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말해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가 애정적인 신체접촉과 함께 긍정적인 정서로 일관되고 민감하게 영유아에게 상호작용하는 반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검증함과 동시에, 이러한 교사의 특성이 영아-교사간의 관계에 대한 영향을 넘어 영아-부모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밝혀주었다.

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4 young children aged 12 to 36 months old and their mothers and teachers. The attachment Q-set and an instrument for teachers' responsivity were us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8.0, and Cronbach's and Pearson's r were calcula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eachers' consistency, warmth, and sensitivit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children's attachment to teachers. In addition, teachers' warm and sensitive responses were related to the children's attachment to mothers. Teachers' warm, sensitive, and responsive characteristics are emphasized for quality interactions between young children and teachers, since they contribute to the children's secure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s well as teachers

Keywords : Attachment, Child-care, Child-care teacher, Sensitivity, Responsivity

1. 서론

아동발달과 영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인간이

출생 후 양육자와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하는 초기 경험을 강조해 왔다. 전통적으로 주양육자는 부모, 특히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게 되는 어머니였다. 따라서 수많은

*Corresponding Author : Sook-Ryong Kim(Paichai Univ.)

Tel: +82-42-520-5418 email: srkim@pcu.ac.kr

Received December 2, 2015

Revised (1st March 7, 2016, 2nd March 21, 2016)

Accepted April 7, 2016

Published April 30, 2016

은 관련 연구들은 어머니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행해져 왔으며, 서구에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 영유아간의 애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특히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에 대한 주제가 다루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최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양육자와 영유아간의 애착의 중요성이 연구주제로 많이 행해져 오고 있어, 양육자의 어떠한 행동이 자녀의 발달에 깊고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최근 급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과 함께 맞벌이가정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어린 시기부터 어머니대신 타인에 의해 양육되는 비율이 높아짐과 함께, 어린 영유아가 대리양육자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인생에서 중요한 초기경험이 부모가 아닌 타인에 의해 많은 시간 동안 이루어질 때 과연 우리의 영유아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일까? 특히 일대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영유아기에 어린이집에서 집단으로 생활하게 될 때 문제가 없을까? 인생초기에 경험하는 상호작용이나 관계형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문제의식은 관련학계의 연구자들뿐 아니라 부모나 행정가들에게도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부모에 따라 영유아가 경험하는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이 다양하듯이, 보육교사의 특성에 따라서 영유아가 경험하게 되는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이 다르게 된다.

특히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영유아의 애착관계는 언어적, 사회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2], 보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영유아가 부모대신 보육교사와 어떠한 애착관계를 갖는가에 대한 연구가 최근의 주요 연구과제가 되었다 [3,4,5,6]. 즉, 인간이 태어나 맺기 시작하는 최초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부모와의 관계이며,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토대로 이후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많은 시간을 부모대신 보육교사와 함께 하는 영유아가 교사와 어떠한 애착관계를 갖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교사와 영유아간의 안정된 애착관계는 정서적 안정 및 또래간 유능성과 적극적인 상호작용 [7,8], 높은 수준의 놀이참여, 인지발달, 긍정적 정서표현 등 영유아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9,10,11]. 영유아가 교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때 유아들은 친사회적이며 또래

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고 협동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며 [12,13], 영유아와 교사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할 때 영유아는 집단놀이에 더 많이 참여한다[14]. 또한 영유아와 보육교사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영아들은 협조적이며 주의집중을 잘 하고, 놀이와 감정이입이 잘 되고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였으며, 영유아는 교사와의 애착을 통해 어린이집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15,16,17,18].

그렇다면 영유아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교사의 특성은 무엇일까? 영유아가 교사에 대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와 교사간 질적인 상호작용이 요구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질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교사의 특성은 애정적인 신체접촉과 지속적인 대화와 같은 반응성, 민감성, 온정성, 애정적 표현 등이 있다 [19,20,21,22]. 애착이론가들에 의하면 안정애착 형성을 위한 양육자의 특성들은 민감성(Sensitivity)이란 개념으로 정리된다[1,2]. 이들에 의하면, 영유아가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민감한 양육자는 영유아의 신호를 잘 읽어 적절하고도 지연되지 않는 반응을 일관되게 하고, 언어적, 신체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며, 영유아를 즐거워하고 적극적으로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한다.

어떤 학자는 중요한 양육자의 행동으로 반응성을 강조한다[23]. 그 하위 요인으로 민감성, 상호성, 적절한 보조, 낮은 지시성, 수용성, 즐거움, 온정이 있다. 이후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영유아와의 질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교사의 특성으로 교사의 관여수준, 민감성, 온정성, 애정적 표현 및 수용성, 애정적인 신체접촉과 지속적인 대화,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 등을 강조하였다[19,23,24].

한편, 교사와의 안정된 애착은, 영유아가 어머니와 불안정하게 애착이 형성되었을 경우 어머니와의 불안정한 애착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완충효과가 있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3,25,26].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와 교사간의 애착은 영유아와 어머니간의 애착관계와 상보적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며 또한, 영유아-교사 애착과 영유아-어머니 애착이 독립적으로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두 변인이 함께 작용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정서적 발달에 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

의 부모와 교사에 대한 애착을 모두 측정함과 동시에 교사의 반응성을 측정하고, 부모와 교사에 대한 영유아의 애착이 교사의 반응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수행되어온 애착관련 선행 연구와 달리,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교사의 반응성과 영유아의 교사에 대한 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교사의 반응성이 영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생활하는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육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교사와 부모 양쪽에 안정된 애착형성을 위한 영유아보육교사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영유아교사교육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교사의 반응성과 영유아의 교사에 대한 애착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교사의 반응성과 영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유아와 어머니, 그리고 영유아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이다. D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8개소에 재원 중인 영유아 64명과 담임교사 12명이었다. 남아 31명, 여아 33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월령은 28개월이었다. 영유아들의 가정은 모두 맞벌이 가정이었으며, 4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수준의 비율이 46%였다.

2.2 연구도구

2.2.1 애착 Q-set

Q-sort 방법은 처음에 Stephenson[27]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성격측정 및 발달연구에 널리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이 방법을 Waters & Deane[28]이 Bowlby의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12~36개월의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애착 Q-set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영유아의 애착관련 행동에 대해 기술된 짧은 문항이 적힌 90개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찰자나

어머니가 카드에 적힌 내용을 읽고 연구대상 영유아의 행동과 유사한 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까지 9개의 묶음으로 카드를 분류하는 것을 토대로 영유아의 애착점수를 산출해 내는 도구이다. 먼저 90장의 카드를 상, 중, 하의 세 묶음으로 영유아의 행동과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나눈 후에, 다시 각 묶음을 상, 중, 하 세 묶음으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9개의 묶음으로 분류한다. 분류된 각 묶음에 애착의 수준을 결정하는 점수가 부여된다. 즉, 90장의 카드들 중 영아의 특성과 가장 일치하는 행동의 묶음에 있는 10장의 카드에 9점, 가장 일치하지 않는 행동으로 분류된 10장의 카드에 1점을 주는 식으로 각각의 카드는 1점부터 9점까지의 점수가 결정되는 것이다. 애착 안정성 점수는 분류자가 카드를 분류하여 연구대상 영아에게 부여한 점수와 애착 전문가들에 의해 부여된 준거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산출함으로써 얻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 Park, & Lah[29]의 한국판 애착 Q-set를 사용하였다.

한편, 교사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Kim[3], Kim, & Shin[4] 등의 연구자들이 애착 Q-set의 내용을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애착 점수는 Lee, Park, & Lah[29]가 개발한 준거점수 기준에 따라 24개월 이전 영아는 12개월용 준거 점수를, 24~35개월 유아는 36개월용 준거 점수를 사용하였다. Waters & Deane의 연구에서 이 도구의 신뢰도는 두 명의 관찰자 간 일치도가 .75~.9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5로 나타났다[28].

2.2.2 교사의 반응성 도구

교사의 반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Mahony[23]가 개발한 MBRS(어머니 행동 평정척도)와 Kim[30]의 연구에서 사용된 교사의 유아지도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반응적인 양육자의 행동특성 중 일관성, 온정성, 민감성, 수용성의 요인들을 추출하여 교사의 행동을 측정하는 도구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는데, 일관성 11문항, 온정성 10문항, 민감성 14문항, 수용성 15문항,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구한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ronbach's α of subdimensions of teacher's responsibility

sub-dimensions	content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consistency	teachers' appropriate consistent responses	11	.72
warmth	teachers' affection & intimacy	10	.81
sensitivity	teachers' active, right-time responses	14	.78
acceptance	teachers' positive responses	15	.64
total		50	.89

2.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예비연구 과정으로서, 애착 Q-set의 문항을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한 후 3인의 전문가를 통해 내용타당도 검토 후, 두 명의 연구원이 애착 Q-set에 익숙한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애착 Q-set 실시방법을 훈련받았다. 연구원은 각각 두 명의 교사에게 애착 Q-set을 실시해보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원 훈련이 이루어진 후 연구원은 어린이집에 평일 퇴근 이후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 교사의 편의에 따라 방문을 한 후, 연구에 대한 안내 및 교사용 설문지와 애착 Q-set에 대한 설명과 훈련을 실시하였다. 교사들은 전부 12개월에서 36개월 영유아 담임교사들로서 연구실시 시점에 자신의 영유아들의 행동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다. 말은 영유아들 중 학부모로부터 연구실시가 허락된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애착 Q-set 검사를 개인별로 실시하였다. 애착 Q-set 실시는 한 영유아당 40분 이상이 소요되어 교사가 필요로 하는 시간이 허락되었다. 교사용 질문지는 처음에 방문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배부되었고, 교사들은 연구대상으로 자신이 맡은 마지막 영유아에 대한 애착 Q-set 실시가 마무리되면 애착 Q-set 검사지와 함께 교사용 질문지를 제출하였다. 애착 Q-set 검사지와 교사용 질문지 회수는 연구자의 어린이집을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등의 기초 통계치를 구하

고 영유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와 연구문제를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애착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영유아 애착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에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영유아 애착 Q-set의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유아 애착의 점수 범위는 -.06~.74이고, 평균은 .40(SD=.17)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연구에서 나타난 애착 Q-set 점수들과 유사한 점수이다[6, 25].

Table 2. Mean and SD of Attachment Q-set score (N=64)

	Range	Mean	SD
Attachment Q-set score	-.06 ~ .74	.40	.17

3.2 교사의 반응성과 영유아의 교사에 대한 애착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교사의 반응성과 영유아의 교사에 대한 애착과 교사의 반응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예측한 바와 같이, 교사에 대한 영유아의 애착은 교사의 일관성, 온정성, 민감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영유아의 애착은 교사의 일관성과는 $r=.32$ ($p<.01$)로, 교사가 영유아에 대해 일관된 태도로 상호작용을 할수록 영유아가 교사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였다. 교사의 온정성과 영유아의 교사에 대한 애착은 $r=.19$ ($p<.05$)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교사가 영유아에게 온정적일수록 영유아는 교사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였다. 교사에 대한 애착은 특히 교사의 민감성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에서 보듯이, 교사에 대한 영유아의 애착은 교사의 민감성과 $r=.41$ ($p<.01$)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교사가 영유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영유아는 교사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였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child attachment Q-set score to teachers and teachers' responsibility (N=64)

teachers' responsibility	consistency	warmth	sensitivity	acceptance
attachment Q-set score to teachers	.32**	.19*	.41**	.09

*p<.05 **p<.01

3.3 교사의 반응성과 영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의 관계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교사의 반응성과 영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4와 같다. 어머니에 대한 영유아의 애착은 교사의 온정성과 $r=.15$ ($p<.05$)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교사가 온정적인 태도로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할수록 영유아는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였다. 특히 교사의 민감성은 영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r=.27$ ($p<.01$)의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교사가 영유아의 신호를 잘 읽고 적절하고도 지연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상호작용을 할 때, 영유아는 가정에서 어머니에게 안정된 애착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hild attachment Q-set score to mothers and teachers' responsibility (N=64)

teachers' responsibility	consistency	warmth	sensitivity	acceptance
attachment Q-set score to mothers	.07	.15*	.27**	.06

*p<.05 **p<.01

4.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의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성인인 부모와 교사에 대한 영유아의 애착이 보육교사의 상호작용 특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어린 시절 형성하는 애착관계는 이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안정된 애착과 관련 있는 보육교사의 상호작용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영유아교사교육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일관성, 온정성, 민감성은 영유아의 교사에 대한 안정된 애착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영유아들이 교사와 질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할 때 교사에게 안정적인 애착행동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양육자와의 안정 애착형성을 위해 민감하고 반응적인 양육자의 특성이 중요하다는 애착이론을 지지한다[7,1,2].

둘째, 교사의 온정적인 태도와 민감한 반응은 영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안정된 애착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교사가 영유아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영유아는 교사에 대한 애착뿐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애착을 안정되게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교사의 반응성은 영유아의 교사에 대한 관계형성을 넘어서서 다른 대상과의 애착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안정된 애착형성을 위한 양육자의 특성인 온정성과 민감성을 높게 보여주는 교사는, 영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이는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리양육의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리양육자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지지함과 동시에 그 중요성을 한층 더 재강조한다.

취업모 자녀인 영아의 종일 대리양육자 유형과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대신 아버지가 주양육자의 역할을 담당했을 경우, 타인양육의 경우보다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에서, 영아가 익숙한 환경인 가정에서 익숙한 아버지가 자신의 영아들에게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한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데[7], 이는 가정과 다른 환경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는 더욱 더 안정적이고 따스하며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호작용하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특히 영유아가 교사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때 이는 부모에 의한 부정적 관계를 완충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3,25,26],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영유아에게는 다른 요인보다 질적인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와 따스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한 유아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낸다.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교사와 상호작용을 하는

영유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유능성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유능성은 유아들이 교사와 안정된 관계를 가지며 건강한 발달을 해나가면서 초등학교에 이르러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24].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민감하고 반응적인 역할이 영유아의 교사에 대한 애착형성뿐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밝혀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영유아의 교사는 영유아와 상호작용할 때 안아주기과 쓰다듬기와 같은 애정적인 신체 접촉을 충분히 하며, 영유아 한 명 한 명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각 영유아가 보내는 신호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반응을 일관되게 하고, 칭찬과 미소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표현되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사의 상호작용 특성이 영아와 교사간의 관계에 대한 영향력을 넘어, 영아와 부모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음이 확인되었다는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1] M. S. Ainsworth, M. Blehar, E. Waters, S. Wall,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1978.
- [2] J. Bowlby,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London: Hogarth, 1969.
- [3] S. R. Kim, "Influence of Infant-teacher Interaction Quality and Teachers' Sensitivity on Infants' Attachment to Parents and Teachers and Social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1, pp. 197-215, 2010.
- [4] Y. Kim, S. Shin, "The Effects of infant attachment to mothers and teachers on adjustment to child care center",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9(5), pp. 229-249, 2013.
- [5] I. Kim, *Infant Attachment Security and Socioemotional behavi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Kwangju, 2010.
- [6] M. S. Cho, *Infant Attachment Security to mothers and teachers and Socioemo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2007.
- [7] J. Belsky, M. J. Rovine, "Nonmaternal care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the security of infant-pare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pp. 157-167, 1988.
- [8] C. Howes, C. E. Hamilton, C. Matheson,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eers: Differential associations with aspects of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65, pp. 253-263, 1994.
- [9] S. Kontos, C. Howes, B. Shinn, E. Galinsky, *Quality in family child care and relative car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1994.
- [10] E. Melhuish, E. Loyd, S. Martin, A. Mooney, "Type of child care at 18 months-II. Relations with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 pp. 15-31, 1990.
- [11] L. Hestenes, S. Kontos, Y. Bryan, "Children's emotional expression in child care centers varying in qualit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pp. 293-307, 1993.
- [12] H. H. Lee, *Study on the Social play participation and Infant-teacher attachment sec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ook University, Seoul, 1997.
- [13] I. O. Kw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attachment security score for their nursery teacher and infants' socio-emotional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2008.
- [14] M. S. Choi, *A Study on the young children's play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Kwangju, 1992.
- [15] Y. S. Kim, N. Shin, "Effects of infants' attachment to mother and teacher on adaptation to child care",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9(5), pp. 229-249, 2013.
- [16] Y. O.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nd teachers and their adjustment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2003.
- [17] S. M. Lim, *The effects of infants' attachment security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 on infant's early adjustment in day 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2014.
- [18] Y. S. Cha, "The story on young children's early social life", *Th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6(4), pp. 227-257, 2009.
- [19] S. Kontos, A. Wilcox-Herzog, "Influence on children's competence in early childhood classroom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pp. 247-262, 1997.
- [20] Y. Lee, *Developmentally appropriate infant program*. Samsung Foundation Conference, 1999.
- [21] K. M. Zanolli, R. A. Saudargas, S. Twardosz, "The development of toddler's response to affectionate teacher behavio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2, pp. 99-116, 1997.
- [22] T. M. Field, J. Harding, B. Soliday, D. Lasko, "Touching in infant, toddler, and preschool nurseries.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Care*", 98, pp. 113-120, 1994.
- [23] G. Mahoney, *Family/child curriculum: A relationship focused approach to parent education/early intervention*. OH: Family Child Learning Center, 1999.
- [24] R. C. Pianta, *Enhancing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teach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99.
- [25] I. O. Kwon, *The effects of infants' temperament, maternal parenting and infant's attachment to mothers and teacher on the infant's adjustment to child ca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2015.
- [26] F. Goosen, M. van Ijzendoorn, "Quality of infants'

- attachment to professional caregivers: Relation to infant-parent attachment and daycare characteristics”, *Child Development*, 61, pp. 832-83, 1990.
- [27] W. Stephenson, *The study of behavior: Q-technique and its method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 [28] E. Waters, K. E. Deane,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 209), pp. 41-65, 1985.
- [29] Y. Lee, K. J. Park, Y. M. Lah,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riterion scores for the attachment Q-set in Korea”,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8(2), pp. 131-148, 1997.
- [30] J. M. Kim,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program for improvement of Parent-child responsive interac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onang University, Daejeon, 2001.

김 숙 령(Sook-Ryong Kim)

[정회원]



- 1985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아동학석사
- 1992년 5월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유아교육학박사
- 1990년 5월 ~ 1992년 4월 : Wisconsin Center for Education Research 연구원
- 1990년 5월 ~ 1992년 5월 : 미국 NICHD(전미아동발달연구기관) Early Child Care Project 스텝
- 1994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영유아교육·보육, 영유아교사, 영유아애착, 부모교육